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6.3 대선을 향한 양당 경선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으로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90% 득표 등으로 사실상 요식절차만 남았다. 그는 본선을 겨냥하며 '전략적 침묵 중'이다. 논쟁이 나 논란 대신 '포용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초점이다. 예전의 '사이다 맛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규제 완화 대신 규제 합리화'나 '의대 증원 대신 의대 정원 합리화'라고 말한다.
겉핥기기준으로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며 30%대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이다. 전국지표조사(NBS)의 가상 3차 대결에서 그는 국민의힘 3강 후보 중 누구와 붙어도 45%를 득표한다.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모두 합해도 25%에서 31%에 불과하다.
가상 3차 대결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0%선에 근접한다는 예측조사도 나왔다. 12월 계엄이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67개를 종합한 지지율 예측조사로 이에 따른 그의 지지율은 49.8%다.
이재명 대권의 결실들은 대부분 사라지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호남 경선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관심일 정도다. 본선 차원에서 보면 이례적이라는 대법원장의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은?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와 당일 바로 합의기일을 정한 것인데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나가 핵심이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재 명은 변수는 '제3지대 반명(反明) 빅 텐트'다. 미래 지향형 단일 후보로 1대 1 양자대결이어야 그나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성공조건은 까다롭다. '이재명은 안 된다'가 출발점이지만 유권자 58%가 "반대만 하는 연대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담이다. '빅 텐트'의 성공을 위한 비명+반명 세력의 정치개혁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단일 후보의 리더십과 다양한 참여세력 간의 정치적 신뢰도 전제되어야 한다.
빅 텐트는 일단 한덕수 참여 여부부터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90% 확률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명과 "한덕수가 나오는 순간 검증이 시작될 거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그의 참여는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1위이자 54명 의원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지만 동시에 "탄핵받은 정권의 총리가 대통령에 나오겠나"라는 우려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몸값이 될 이준석의 참여는 빅 텐트의 완성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1라운드를 마치고 4강전을 향한다. 4강은 '찬탄과 반탄 반탄'으로 평가된다. 나경원 탈락 이변으로 경선을 외면했던 유권자들이 돌아보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1라운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따라 사실상 당심이 결정적일 것으로 봤다. 그래서 나경원

탈락은 의외다. 이념이 곧 밭이고 체제 전쟁의 선거라며 반탄 집회의 주요 연사였던 그녀의 '드림통 무리수'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안철수 4강'은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사람들이 이제의 탄핵 찬반 여부는 안 따진다며 중도 확장성과 그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본선 경쟁력의 기준으로 투표한다는 말이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윤석열 탈락'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의 4강 진출은 국민의힘 경선이 '찬탄 vs 반탄 구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예상과 기대보다 빠른 '윤석열 아웃'의 모양새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론은 그에게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는 "이기고 돌아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확정적 망상'으로 "병형 가야한다는 반발과 '당에 부담될 뻔'이라며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관심은 2강 압축이다. 1-3위 후보들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로 반탄 vs 찬탄 득표율은 6대 4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원투표 50%로 더 보수적일 가능성이라는 전망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전략적 판단일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대선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선거다. 그들의 야망 할 준비가 원칙적이다. 이번 경선은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후 진영과 당의 성찰과 책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준비의 개혁 리더십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주목한다.

종교칼럼



황성호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12년의 사목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셨다. '가난한 이들의 교황'이라 불리며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긴 그의 삶은 깊은 슬픔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울림을 남겼다. 사회의 약자에 속하는 이들과 함께 했고 특히 이주민과 난민에게 보여준 각별한 관심과 사랑은 국경과 인종, 종교를 넘어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일깨워주었다.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남미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면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구장이었을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시민들과 가까이 있었고 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편에서 계셨다. 그래서일까?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 대신에 철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전통적인 교황의 속사로 알려진 크고 아름다운 사도궁에 들어가는 대신에 일반 사제들의 공공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기거하셨다. 권위적인 모습 대신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켰

'가난한 이들의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

다. 특히 교황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표하며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였다.
다들 기억할 것이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교황 프란치스코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 46일 동안 단식했던 유민 아빠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고통 애에는 중립이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다. 교황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 이주한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며 국경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환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교황의 이같은 노력은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인류가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이처럼 교황의 모든 여정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그 세상 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교황의 겸손과 섬김은 사람들을 향한 지도자의 모습 이었고 세계가 이 모습으로 열약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원하셨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교와 사제들이 권위주의와 성직주의에 빠져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권고하셨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섬김의 모습으로 교황은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해 주셨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해 주셨다.
사회는 구조적인 악으로 열약한 처지에 놓여 버림 속에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핍박과 착취와 폭력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연대하셨다. 결국 이 연대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안타깝고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았던 삶이 절대적 이타주의의 삶이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겪어오셨던 수난과 십자가의 삶이기도 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삶이 남긴 영원한 울림을 기억한다.

숫자로만 평가되는 사회, 무엇을 잃고 있는가

라 본다. 결국 사람들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본질적인 가치를 포기하게 된다. 또한 숫자로 환원되는 사회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신용점수가 한 번 낮아지면 좀 처럼 회복하기 어렵고 낮은 학점을 받은 대학생은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즉 과거의 숫자가 미래를 간섭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은 점점 더 숫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숫자로 평가하는 사회는 겉보기에 공평해 보인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성적이나 실적이 높으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숫자는 때론 사회적 불평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 때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기회를 줄여들게 하고 신용점수를 높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비슷한 상황은 교육과 취업 시장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교육이 필요한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또 다른 문제는 숫자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데이터를 조작한다. 일부 개인은 SNS에서 팔로워와 '좋아요'를 돈으로 사고파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숫자가 객관적이라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숫자조작도 인간의 개입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크게 잃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다. 창의성, 공감, 도덕성 등 같은 것들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 만약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사회라면 예술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작품을 팔았는지로만 결정될 것이고, 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다양한 요소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이 두렵다.
숫자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숫자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면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는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과 인성 등을 포함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직장내 성과 평가도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여도와 협업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숫자는 세상의 가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이 곧 인간을 규정하거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인간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과 교수

숫자는 언제부터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까. 본래 숫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였다. 고대 인류는 가축의 수를 세고 농작물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판, 이집트의 수학적 계산법, 인도에서 도입된 '0(無)'의 개념은 숫자가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숫자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에서 벗어나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됐다. 학생들은 점수로 능력을 평가받게 되었고 직장인은 연봉과 성과 지표 가치를 판매 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뢰도조차 신용점수라는 숫자로 결정되게 되었다.
숫자는 명확하고 비교하기 쉬운 사회는 점점 더 인간을 숫자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담을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은 점수로 표현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장을 들여다 보기는 어렵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숫자로 측정하다 보면 창의적인 시도나 구성원들과 협업 같은 요소는 무시되고 단기적인 실적만을 중요하게 바

社說

5·18사적지 국가 주도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국가 주도해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5·18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역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는 모두 29곳으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은 5·18 구도지(24호)와 옛 광주직접집사병원(11호), 옛 광주교도소(22호)다. 광주시는 5·18 구도지는 5·18 첫 희생자들이 묻힌 곳이자 현재는 이현열 열사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묘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2028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18 역사광장과 추모 공간을 갖춘 민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상자 치료와 헌혈 나눔의 장소인 옛 광주직접집사병원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등의 기능을 갖춘 미래세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 용역비 17억원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약속했다 중단 상태인 옛 광주교도소는 다시 추

진한다는 계획이다. 5·18 당시 시민 학살 및 암매장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특징을 반영해 역사 체험과 전시·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140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가 5·18 사적지를 국가 주도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 5·18 정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깨달은 만큼 정부가 나서 민주주의 교육현장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명분이 충분하고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니다. 가장 급한 곳은 옛 광주교도소 활용 방안이다. 부지를 소유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선도사업지로 지정해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다 광주시민들의 반발에 포기했지만 아직도 선도사업지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포함해 5·18 사적지를 일괄적으로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하길 바란다. 5·18 사적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스 투어리즘 상징물로 키우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핵심사업 반영해 기대 부응한 이재명 호남공약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발표한 호남 공약은 대체로 지역 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였다. 광주 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핵심 현안을 발굴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후보의 공약에 거의 포함됐다.
이 후보는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해 경제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5대 분야로 나눠 호남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후보 공약의 큰 의제인 '에너지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슈터뷰 시대를 여는 것인데 그 핵심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메가인 호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한 점이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해당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남 서남권 경제 발전과 직결된다.
광주 산업의 양 날개인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에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국가 AI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도시를 만들고 자동차를 축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고 여수의 석유화학을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전남의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광주 균광항 이전에 대해서는 협의의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입장만 밝힌 것은 아쉬운 점이다. 대선 공약은 그냥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도 많다. 이 후보가 호남 공약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내놓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無等鼓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광주FC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중 앞에서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상대로 아시아가 주목하는 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26일 오전 1시 30분 광주e스포츠경기장에 때아닌 웅원 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날 광주는 사우디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알 힐랄을 상대로 24-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전 경기를 치른다.
K리그 유일의 생존팀 광주FC와 사우디으로 사우디로 날아온 광주FC 선수들은 긴장보다는 기대감으로 또 다른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2023시즌 K리그1 3위에 올라 ACLE 출전권을 얻은 것부터 놀라운 일이었다. 일본 요코하마를 상대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ACLE 첫 승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이다.
7대 3의 대승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광주FC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3연승 질주도 했고, 16강까지 진출해 0대 2의 승부를 3대 2로 뒤집는 집념의 승리로

만들어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과 같았다. 시민구단이라는 한계 속에서 거대한 바위를 치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광주FC는 바위를 깨고 사우디로 날아왔다.
이번 경기도 객관적으로 보면 최악의 대진이다. 알 힐랄은 상대 입장에서는 서아시아 그톱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다.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포진시킨 팀으로 연봉은 광주FC 선수단의 30배에 이른다. 여기에 상대의 안방에서 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경기장 분위기는 양방방적이다.
"오히려 잘 됐다"며 알 힐랄을 기다리고 있다. 몰리실 곳 없고, 잃을 것 없는 광주FC는 강적을 상대로 후회 없이 달릴겠다는 각오다. 이철호 감독은 내친김에 우승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승리를 목표로 한다.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일지라도. 광주FC는 이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세상에 정해진 결과는 없다. 그걸 광주FC가 보여주고 있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nam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nam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circulation and advertising, including phone and fax numbers, and a QR code.